

‘현우경’ 이야기 (26)

역울함을 벗은 남자의 사연

#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누명 벗은 단니기

어느 나라에 단니기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그는 소가 없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니기는 한 부자를 찾아가 소를 빌려 수확을 마친 뒤,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튿날, 소 주인이 단니기를 찾아왔다.

“소를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 돌려주지 않는 것이요?”

“소는 이미 돌려드렸습니다.”

“나는 소를 받은 적이 없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어제 집 앞에 소를 놓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결국 소 주인이 단니기를 데리고 왕을 찾아가 소 값을 변상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소 주인과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말머리를 만났다. 말머리는 단니기에게 자신의 말을 잠깐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말이 갑자기 도망치려 해, 단니기는 말에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말 다리에 돌이 맞아 부러지고 말았다. 말머리도 소 주인과 함께 왕을 찾아가 변상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자신에게 자주 역울한 일이 생기자 속상한 마음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셨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잠시 평상에 누워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단니기는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이불인지 모르고 깔고 앉아서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 아이 엄마도 소 주인, 말머리와 함께 왕을 찾아가 단니기의 죄값을 묻기로 했다.

“세상에 이렇게 역울할 때가 있나... 왕도 분명 나의 역울함을 몰라주고 죽이려 할 것이다.”

단니기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망가기 위해 담벼락을 넘었다. 그런데 하필 담 아래서 일하던 직공 위로 떨어져 직공이 죽고 말았다. 이번엔 직공 아들도 단니기의 죄값을 물겠



삼화 · 강병호

다고 왕을 찾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왕 앞에 단니기를 데려왔다.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느냐?”

“이 자가 제 소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 습니다.”

“왜 너는 소를 돌려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 사람에게 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도 소를 보았지만 그냥 문 앞에 두었고, 소가 제 발로 도망친 것입니다.”

“너희 둘 다 잘못이 있다. 단니기는 직접 말하지 않았기에 허를 뽑아야 하고, 너는 소를 보고도 돌보지 않아 눈을 뽑아야 한다.”

소 주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제 눈이 뽑

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자의 죄를 용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말머리가 말했다.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저 사람이 제 말의 다리를 부러트렸습 니다.”

“말머리가 저에게 말을 잠시 맡아 달라 했는데 말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말을 잡기 위해 돌을 던졌는데 다 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말했다.

“말머리는 저 사람에게 말을 부탁했으니 허를 뽑아야 하고, 단니기는 말 다리를 부 러트렸으니 손을 뽑아야겠다.”

결국 말머리도 단니기의 죄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이 엄마가 사정을 말했다.

“저 자가 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너는 왜 남의 아이를 죽였는가?”

“너무 역울해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불 밑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깔고 앉

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아이 엄마는 단 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해 다시 아이를 낳은 후, 저 자를 쫓아 내거라.”

단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싫었던 아 이 엄마도 단니기의 죄를 묻지 않았다. 마치 막으로 직공의 아들이 단니기 죄를 말했다.

“저 자가 일하고 있던 저의 아버지를 죽 였습니다.”

“너는 왜 직공을 죽인 것이냐?”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워 담을 넘어 도망 치려다 직공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단니 기를 아버지로 삼아 살거라.”

“저 자가 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싫습 니다. 그냥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단니기는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역 울함을 벗게 됐다. 왕은 그 후로도 역울한 중생들을 구제해 훗날 부처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 대장경 속 우화 (28)

—너무 바빠서 목숨을 잃다—

구성-김흥인

부처님이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재물이 많은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집에 대한 욕심이 커서 집을 많이 지었다.

어느날 부처님이 바라문의 집안을 지날때 그의 욕심이 다하였음을 알았다.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깨우침을 주고자했다.

아주 오랫동안! 요즘도 여전히 바쁘군 그래...!

아이구 정말 오랫동안 봐줍니다!

저 많은 집들은 어디에 쓰러는거?

요건 손님을 맞는 사람재!

저건 여름에 살 집! 그 뒤편 겨울에 살 집...

얼른얼른 지어야 다음거를 또 짓지-

걱정 말고 들어가 쉬세요~

허어~ 죽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군...!

그 옆은 재를 저장소... 그걸 지키는 문지기의 방!

저 건너 집은 자식들이 결혼 해서 살 집 이구요~

그럼 계승만 얼른 돌려주시죠~!

자식과 재물때문에 오늘도 어리석은 자는 허덕이누나! '나'도 '나'가 아니거늘 자식과 재물을 걱정할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더울때는 여기서 살리라 추울때는 여기서 살리라...! 어리석은 이는 미리 걱정도 많건만 다행을 뵈고는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기 지혜롭다 하면 그야말로 더없는 어리석음이라...!

그럼 저는 이만 바빠서...! 실례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승 이로운요!

가자 쿠내! 어휴~

이 사람들이 일 안하고 뭐해! 어쩔 가는거야?

어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내일 비 그치면 오겠습니다!

시간이 금인데 말야! 비온다고 못해~?

바라문은 서까래를 직접 올리다가 미끄러져 그것에 깔려죽고 말았다.

어리석은 이가 지혜로운 이와 친하다고 해도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오래 사귀었다 해도 그 법을 알지 못하네...!

죽었 어요!

부처님이 마을을 채 떠나기도 전에 번고가 일어난 것이었다. 끝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제현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니?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갈니?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숯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간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네이버에서 「영일상사」를 검색하세요.